

Economy Brief

베선트 장관, 미 국채시장 소방수 역할 본격화

Economy Brief

[경제] 박상현 2122-9196 shpark@imfnsec.com

Check Point

베선트 재무장관이 최근 눈에 띄게 금융시장 및 언론에 자주 등장하는 이유는 미국 국채시장 불안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미-일 외환시장 공조와 더불어 방송 등을 통해 베선트 장관이 이란 문제를 언급하는 것은 미국 국채시장의 소방수 역할을 하기 위함으로 해석됨

다행인 것은 베선트 장관이 금융시장 전면에 등장한 이후 다소는 어수선했던 금융시장이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는 점임. 다만, 엔화 추이를 주목할 필요가 있음. 엔저 재개 시 제2의 트러스 쇼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베선트 재무장관, 미국 국채시장 소방수로 나서는 듯

그 동안 시장에서 주목받지 혹은 소외되었던 베선트 장관이 금융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두발언을 잇따라 내 놓고 있다. 이처럼 베선트 재무장관이 눈에 띄게 등장하는 이유는 미국 국채시장 불안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란발 유가 변동성 확대에 따른 인플레이션 리스크가 제대로 진정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롭게 출범한 케빈 워시 의장 체제의 미 연준이 시장에 주는 중량감은 이전보다 부족하다. 케빈 워시 의장이 금리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회피하는 것도 있지만 7월 FOMC 회의 결과에서 보듯 금리정책을 두고 미 연준내 갈등이 심화되고 있지만 이를 제대로 통제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에 따라 미국 30년 국채 금리가 2007년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미국 국채시장이 다소는 어수선했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베선트 장관이 소방수로서 적극적인 국채시장에 개입하고 나선 것으로 보인다.

미국 국채시장의 소방수로서 베선트 장관의 첫번째 미션은 미-일 외환시장 공조였다. 베선트 장관은 외환시장 개입의 의지를 밝히는 메모를 내각회의를 통해 의도적으로 시장에 노출시키면서 강력한 외환시장 개입 의지를 금융시장에 전달하는 동시에 실제로 '유로화 매도-엔화 매수'라는 시장개입을 통해 엔 약세 방어를 단행했다. 이후에도 베선트 장관은 엔 약세 방어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임을 밝히고 있다. 그 일환으로 베선트 장관은 미 연준의 위기대응용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을 가동 혹은 규모를 확대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베선트 장관도 엑스(X·옛 트위터) 글에서 FIMA 레포 기구는 중요한 장치로, 향후 수개월 내에 이 규모가 확대되기를 권장한다"고 밝혔고 4일 CNBC 인터뷰에서도 "연준이 레포 규모 확대를 고려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나는 이것이 바로 이런 상황을 위해 마련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참고로 베선트 장관이 언급한 미 연준의 해외·국제통화당국(FIMA) 레포 기구란 연준이 2020년 팬데믹 대응을 위해 그해 3월 도입한 제도로, 위기 상황에서 외국 중앙은행에 달러화 유동성을 긴급히 공급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후 2021년 7월 상시 기구로 전환됐다. FIMA 계좌를 보유한 외국 중앙은행이 보유한 미국채를 연준에 담보로 맡기면 연준이 해당 중앙은행에 달러화를 제공하는 구조다. (연합인포맥스, 8월 5일 기사참조)

베선트 장관이 이처럼 엔 약세 방어에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이유는 당사의 지난 3일자 보고서(미-일, 공격적으로 엔 방어에 나선 이유)에서도 강조한 바와 같이 일본 정부가 엔 약세 저지를 위한 시장개입용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미국 국채 매도로 인한 미국 국채 금리 상승을 사전에 방어하기 위한 차원으로 해석된다. 앞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장기물을 중심으로 미국 국채시장이

불안한 상황에서 일본의 공격적인 외환시장 개입의 후폭풍을 우려한 것이다. 소위 제2의 '트러스 쇼크'를 공조를 통해 사전에 차단한 것이다.

베센트 장관은 이란 문제에도 등장하기 시작했다. 베센트 장관은 CNBC 방송에서 "지난주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상대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규모 군사작전 중 하나가 될 수 있었던 조치를 하겠다고 위협했고 그로 인해 우리는 현재 이란과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 생각에는 오늘이나 내일 중으로 해협을 개방하고 이 분쟁을 좀 더 정상적 국면으로 이끌어갈 합의가 이뤄질 수 있다고 본다"고 강조하는 등 이란과의 협상에 낙관적 입장을 표명했다.

미국-이란간 협상 진척 여부는 불투명하지만 베센트 장관마저 이란과의 협상 진척을 언급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 발언보다 시장에 강한 신뢰감을 주기에 충분하다. 정말 미국-이란간 협상, 특히 호르무즈 해협 봉쇄 해제를 두고 협상이 타결되지는 좀더 지켜봐야하지만 베센트 장관 발언이 유가 추가 하락 등을 통해 단기적으로 미국 국채시장 안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은 분명하다.

요약하면 베센트 장관이 금융시장 전면에 다시 등장한 것은 어찌보면 미국 국채시장 흐름이 심상치 않음을 반증하는 것이지만 한편으로 베센트 장관이 국채시장의 소방수 역할을 하고 있음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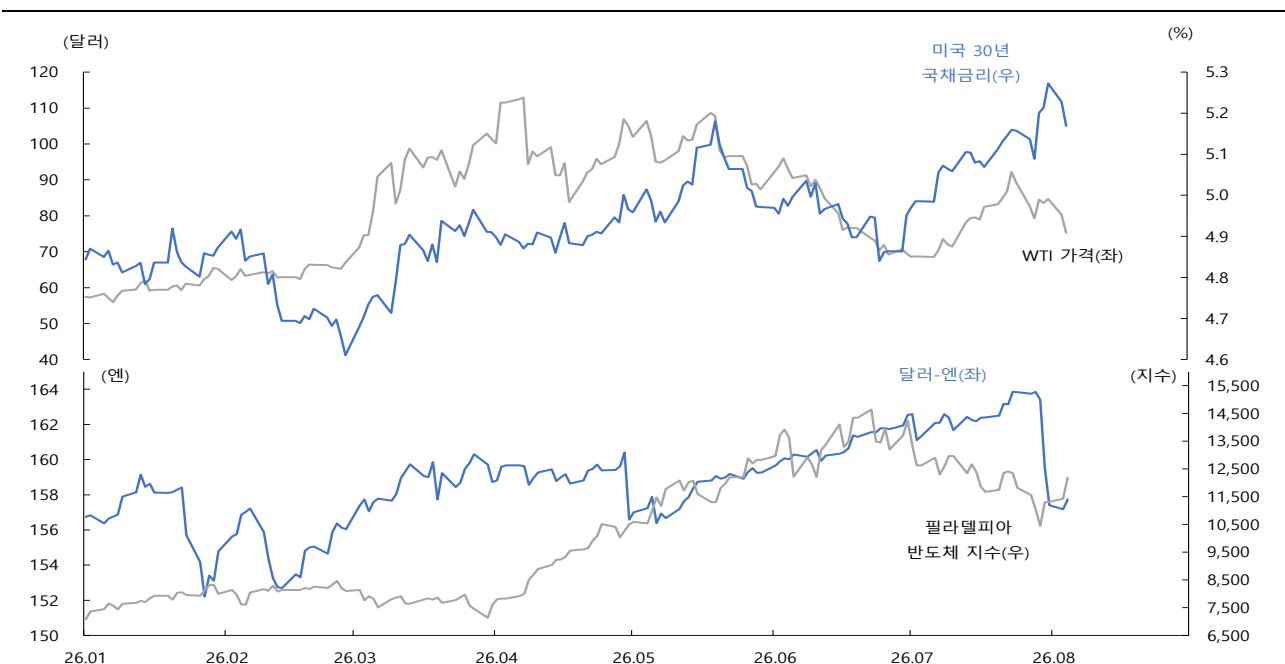
어수선한 금융시장 분위기가 진정되는 추세 : 엔화 추이가 변수

다행인 것은 다소는 어수선했던 금융시장이 안정을 찾아가는 분위기다. 엔화도 일단 강세 흐름을 유지하고 있으며 미국 30년 국채 금리도 소폭 하락했다. 다우지수가 사상 최고치 랠리를 보이고 있고 다소는 큰 폭으로 하락했던 반도체 지수도 반등이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 하이퍼스케일러의 CDS 프리미엄 상승세도 일단 수그러졌다. 베센트 장과 효과인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베센트 장관이 전면에 나선 이후 주요 금융시장이 안정을 회복하고 있음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안심하기는 이른 시점이다. 우선 베센트 장관 발언처럼 이란과 합의, 즉 호르무즈 해협 봉쇄 해제와 관련된 합의가 단기간에 도출될지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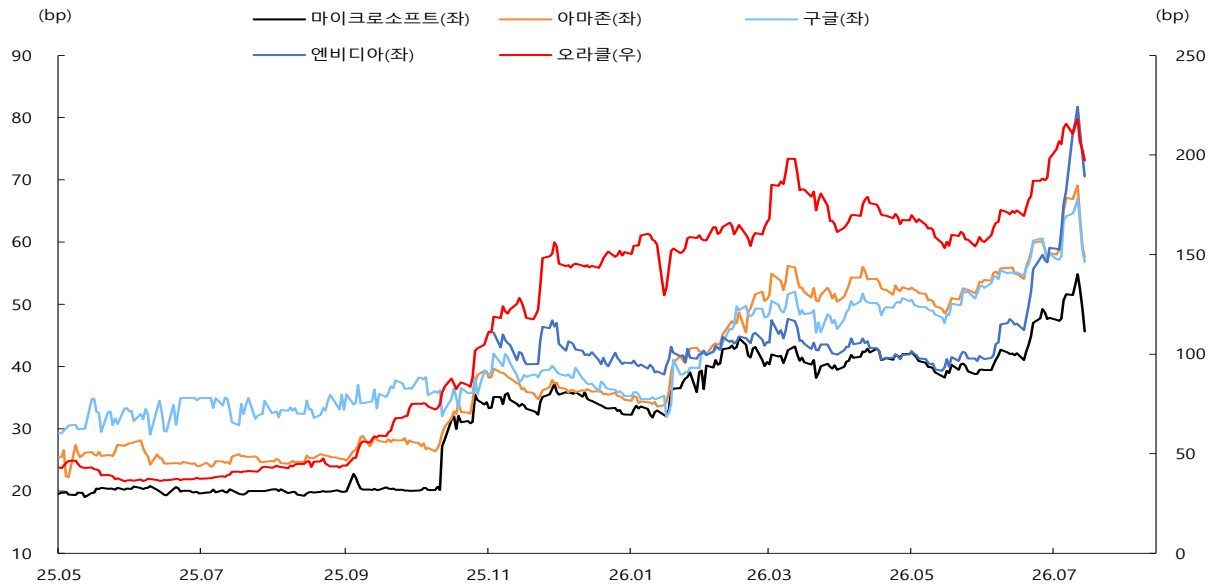
그리고 엔화 흐름도 주목해야 한다. 미-일 외환당국이 충분한 실탄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현 수준에서 달러-엔 환율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지만 예상과 달리 엔 약세, 즉 달러-엔 환율이 160엔대로 복귀하는 흐름이 나타난다면 미-일 국채 금리 급등이 동시에 발생하는 '제2의 트러스 쇼크'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미국이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엔 약세 현상이 재개된다면 달러-엔 환율이 이전 고점을 수준을 넘어 상승하는 슈퍼 초엔저 현상이 발생함은 물론 미국 국채시장을 포함한 주요국 국채시장의 금리 발작으로 크게 요동칠 수 있다. 당분간 엔화 환율 추이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이다.

그림1. 베센트 장관이 금융시장 전면에 나서면서 어수선했던 금융시장이 다소 안정을 찾아가고 있음



자료: Bloomberg, CEIC, iM증권 리서치본부

그림2. 하이퍼스케일러 CDS 프리미엄 상승세도 일단 주춤해짐



자료: Bloomberg, CEIC, iM증권 리서치본부

Compliance notice

· 당 보고서는 기관투자자 및 제 3자에게 E-mail등을 통하여 사전에 배포된 사실이 없습니다.

· 당 보고서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박상현)

본 분석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따라서, 본 자료에 의한 투자자의 투자결과에 대해 어떠한 목적의 증빙자료로도 사용될 수 없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작성자 및 당사의 허가 없이 전제, 복사 또는 대여될 수 없습니다. 무단전제 등으로 인한 분쟁발생시 법적 책임이 있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